

# 고속도로 조경과 조경수의 전망

대전 IC 공조팜 개화



조성준 | 시설팀/조경차장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1968년 말 경인고속도로 24km 구간의 완공으로 고속도로 시대가 시작된 우리나라는 금년 5월말에 개통한 대전-당진, 공주-서천간의 개통으로 3,426km를 보유하게 되어 전국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연결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생활, 문화 등에 직·간접적인 영

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은 고속도로 조경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기존의 정원, 조원의 園(원)적인 개념에서 주변경관까지도 아우르는 한 차원 큰 스케일의 造景의 개념 도입을 불러일으켰고, 가로수 개념의 병목식재에서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면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mass(군식) 개념의 자연형 식재의 시도로 조경식재 패턴을 선도하기에 이르렀다.

초창기 고속도로 주변 녹화 및 절·성토 법면의 보호 식재에서 출발한 고속도로 조경은 이후 주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 향상 등 경관과 기능을 고려한 '고속도로 가능 식재'가 고속도로조경의 패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나 노선에 식재된 수목이 성장하면서 도로 안전성에 지장을 주고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 등 민원 야기 및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노선주변 식재는 줄이고 나들목·휴게소 등 시설지 위주로 식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사

회의 지속성장 및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LOHAS(로하스)개념을 도입한 고속도로 조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 조경에 사용되는 수종은 경인, 경부, 호남고속도로 개통 시기인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변산야가 황폐하여 녹화개념의 식재와 속성수를 위주로 한 리기다 소나무, 오리나무, 낙엽송, 현사시, 이태리포플러, 족제비싸리 등이 식재되었고, 나뭇목, 휴게소 등 시설녹지에는 잔디를 위주로 한 녹지에 전통적인 정원수로 쓰이던 향나무, 주목, 개잎갈나무, 측백나무, 잣나무, 은행, 목련, 빛나무, 수양버들, 버즘나무, 개나리, 진달래, 박태기, 무궁화, 회양목 등이 식재되었다. 이후 녹지대를 개량하면서 집단미가 아름다운 홍·황철죽 등 칠썩류가 대적으로 보강 식재되었으나 열악하고, 부적합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년내에 모두 고사하고 말았다. 80년대 초부터 자생수종에 대한 관심과 자생수종이 조경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조경계의 시도는 1987년도에 시행한 '중부고속도로 조경'에 반영되어 소나무를 주종으로 한 조경이 시도되었고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복자기, 이팝나무, 자작나무, 전나무, 미선나무 등이 조경수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여 지금도 사랑 받는 조경수로 자리잡고 있다.

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정 핵심 목표로 인해 조경수 수요 및 전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밝을 것으로 보이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써 수목의 존재가치 부각 및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의 지하화, 고층화에 따른 녹지면적의 증가, 도시재개발 및 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4대강 정비사업, 도시숲 조성, 도로의 신설 및 확충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어느때 보다도 활발하여 향후 10년 까지도 수목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목 공급 부족 및 소나무 등 산지에서 공급되는 수목의 질적 수준이 수요자(기관)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기존에 식재된 밀식수목을 솎아 신설 노선공사에 공급하는 사업이 대전-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에 시도되어 상당한 성과와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각 기관에도 파급될 경우 재배농가에서 공급할 대형목의 수요는 다소 줄어들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나무를 심겠다는 사람들에게 흔하게 받는 질문은 무슨 나무를 심어야 좋냐?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나무

를 심어야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냐는 말인데 서서때 때로 변하는 수요와 공급을 어찌 알겠는가?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최고의 조경수는 누가 뭐래도 향나무였다. 그러나 지금은 조경의 스케일이 커졌고 자연친화적이며, 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택하는 추세에 따라 향나무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기호 및 환경변화에 따라 선호수종이 변화해 나가겠지만 그 흐름과 방향을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는 수종들이 조경용으로 많이, 그리고 꾸준히 사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 경관 조성에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수종
-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여 오랫동안 잘 지랄 수 있는 수종
- 전정 등 관리가 번거롭지 않은 수종
- 꽃·단풍·수피·열매 등 특징이 강한 수종
- 습지에 잘 지랄 수 있는 수종
- 염해에 강한 수종

조경 수목의 용도에 따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조경의 스케일과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목의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록수이면서 경관의 중심축을 이루는 소나무는 크기나 형태·용도에 따라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조경수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엽이 풍성하면서 생장력이 강한 느티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대왕참나무, 중국단풍 등은 가로수, 녹음수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며 셋째, 꽃, 단풍, 수피, 열매 등이 아름다워 특화 경관을 조성하거나 지자체의 관광, 홍보, 축제행사와 어울리는 경관용으로 많이 식재되는 산수유, 배롱나무, 왕벚나무, 산딸나무, 이팝나무, 자작나무, 팔배나무 등도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연친화적인 생태 식생에 따라 내음성이 있는 다층구조 식생의 하층 식재목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며, 그 후보군으로는 병아리꽃나무, 가막살나무, 산수국, 백당나무 등을 들 수 있겠다.

다섯째, 4대강 정비와 조경요소로 수변공간 도입이 증대됨에 따라 수변식생 및 습지에서도 잘 자라는 수종인 메타세콰이어, 낙우송, 버드나무류, 물푸레나무, 느릅나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여섯째,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의 개발과 임해매립지에 대한 조경 수요의 증대에 따라 곰솔, 모감주,


해당화, 동백나무 등 내염성 수종의 선호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일곱째로, 수목의 하층식재와 화목류로 활용되는 수목으로는 잡초나 덩굴식물에 의한 피압에 강하고 관리가 용이한 공조팝, 조팝나무, 화살나무 등이 있다.

여덟째, 도시녹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옥상 녹화용으로 쓰이는 왜성화된 소나무, 노랑조팝, 코니카가문비, 황금실화백, 왜성말발도리와 입면녹화로 활용되는 덩굴식물로 담쟁이, 미국담쟁이, 마삭줄 등이 향후 촉망받는 조경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난화에 따른 생육 한계선 확대로 다양한 남부 수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화기간이 길고 꽃이 화려한 배롱나무, 꽃과 열매가 아름답고 산성토양에 적응력이 강한 팔배나무, 염화물 피해에 강하며 수형

이 고르게 자라고 꽃이 아름다운 공조팝 등 경관적, 생태적, 환경적으로 장점이 많은 수종들이 유망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수종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초보 재배농가일수록 특정수종 재배를 통한 황재를 바라기보다는 대중성 있고 수요가 많은 수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이 좋겠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농가에서는 대중적인 수종과 지역여건상 재배에 유리한 수종이나 농가별 특화수종이 조화를 이루는 수종의 선택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무를 가꾸면서 내가 볼 때 좋은 나무, 또 아름답고 장점이 많은 나무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가꾸어 조경의 소재로 널리 알리고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배롱
2. 충청본부 현관 캐노피 화단
3. 팔배꽃
4. 팔배나무꽃
5. 팔배열매
6. 배롱나무
7. 휴게소 공조팝개화
8. 논신지사 메타세콰이어 수림

